

사랑의

대림 제 1주일

2020년 11월 29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8551-2906(연령회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00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10:3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미사

마산교구 희년 전대사 수여 성당과 성지: 명례성지,복자 윤봉문 성지,옥포성당

- ### ■ 성탄 판공성사 일정

- 요셉회 이번 주 교중 미사 후

- **젬마회 총회 이번주 교중 미사 후**

- 진영산악회 취소되었습니다.

- 성사표는 소공동체장이 배부합니다.
* 초등부: 12/12일 14:30
* 중고등부, 청년회: 12/12일 17시30분

- 성모을타리 우리밀 빵 판매
 - 일시: 11/28(토)~11/29(주일) 미사 전, 후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미사 참석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 평화 선언 캠페인 서명참여 요청
-서명지는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11월29일(대림 제1주일)		12월 6일(대림 제2주일)	
새벽 미사	해 설	안정준 바오로		차화선 스텔라	
	1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박안홍 시몬	
	2독서	김인숙 세실리아		손 요안나	
교중 미사	해 설	김재실 에바리스또		정미화 M. 막달레나	
	1독서	정혜민 발레리아		이흥기 요한	
	2독서	노정옥 카타리나		도명숙 프란치스카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11월30일(월)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3일(목)	12월 4일(금)
해설	손 요안나	이가희 소피아	황숙자 베로니카	안정준 바오로	도정숙 메히틸다
독서	박행자 모니카	인자하신 동정녀	애덕의 모후	성실하신 모후	자비로운 모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신희락(요아킴), 박재현(요한보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교육분과
	미사안내	사회복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순교자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11/23(월)-11/29(일)	6구역 신용만
	차량봉사(좌곤리)	전: 최효찬(프란치스코) 후: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어린이 미사 차량봉사(11/28일)	신희락(요아킴)
12월 6일 (대림 제2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진호재(라파엘), 이천희(필립보)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선교분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11/30(월)-12/ 6(일)	6구역 주호, 월림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어린이 미사 차량봉사(15/ 5일)	안정준(바오로)

교무금 : 11월21일(토) -11월27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김가영(아나다시아)	11	이석규(알로이시오)	10-11	전삼택(마르첼로)	11
장혜경(프란치스카)	9-12	김연순(마리아)	10	김순자(글라라)	11-12
유옥련(아가다)	11-12	박순연(마리아)	11	박두리(아네스)	11
고영옥(테레사)	11-12	서경득(요안나)	9-12	김판곤(오네시모)	11
심영옥(레지나)	11-12	엄복순(아셀라)	11	이병관(요셉)	11
김종섭(그레고리오)	9-10	박동주(F.로마나)	11	김종진(안토니오)	5-8
김미영(정헤엘리사벳)	4-10	김중호(요한)	11	양귀남(마리아)	10
박준규(아우구스티노)	11	김재실(에바리스또)	11	최효찬(프란치스코)	10-11
강연옥(헬레나)	12	정규식(요셉)	7-11	김희덕(바오로)	11
송승환(바실리오)	11	이화자(안젤라)	11	김선희(베아다)	11
윤혜옥(엠마)	11	양희주(안드레아)	8-11	서원미(엘리사벳)	11-12
허정순(마르타)	12	김명호(마르티노)	11-12	김경선(다리아)	11
백죽엽(예로니모)	11	박상옥(안토니오)	11	이재동(토마스)	11
강경희(로사)	11-12				
교구사업모금(2020년 배정액2,811만원중1230만원 봉헌) : 11월21일(토) -11월27일(금)					
서경득(요안나)	완납	이점순(미카엘라)	완납	강연옥(헬레나)	완납
이호형(프란치스코)	1	강경희(로사)	1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수 : 339 명			
		교무금		7,370,000원	
		주일 헌금		1,817,400원	
		교구사업모금		605,000원	
		성소후원금		199,000원	
		2차 헌금			

- 화 답 송 -



안수

손을 머리에 얹는 의식 또는 손을 드는 의식을 안수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견진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 그리고 때로는 성세 예절 때 또는 고백 성사 예절 때도 손을 머리에 얹든지 또는 손을 몸에 닿지 않고 높이 쳐들고 기도하는 의식이 있다.

안수례에 있어서 손은 원칙적으로 어떤 ‘권한’을 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안수례를 통해서 첫째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권을 전달하는 뜻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강복을 비는 뜻을 나타낸다.

큰 돌과 작은 돌

두 여인이 현명한 노인 앞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노인은 두 여인에게 자기 죄에 해당하는 크기와 수만큼 돌을 가져오라고 했다. 앞의 여인은 자신이 들기조차 힘든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왔고 뒤의 여인은 작고 가벼운 돌들을 수십 개 가져왔다. 그러자 노인은 느닷없이 들고 왔던 돌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오라고 했다. 두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돌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무거운 돌을 들어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돌 하나였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개의 작은 돌을 주워온 여인은 원래의 자리를 일일이 기억해낼 수가 없어 한동안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던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니라.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지만, 수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의 자리를 잊어버려 도로 갖다놓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을 겸허하게 견디어 왔다. 하지만 작은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의 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모두 잊고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뉘우침 없이 결국 버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른 이의 허물은 이것저것 말하면서 더욱 깊은 죄에 빠진 자신은 진정 모르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